

朱子學의 韓國傳播와 退溪學**

錢 穆*

나는 『朱子新學案』을 완성한 다음부터 곧 계속하여 『研朱餘瀋』(주자 연구의 나머지 글)을 착수하여 朱子學의 전과를 대략 서술하기로 하였다. 黃東發·王深寧의 宋元교체시대로부터 시작하여 清代의 錢竹汀에 이르기까지 찾아 얻은 것이 이십인에 지나지 않았다. 원고가 거의 완성 될 무렵에 마침 금년 가을에 한국 서울로 가게 되어 거기서 한국 李王朝의 선현들이 朱子學을 研討한 여러가지 문집들을 얻어가지고 돌아 와서 그것을 閱讀하고 정리하여 『朱子學韓國傳播考』을 撰述하여 『研朱餘瀋』의 뒤에 부록하기로 하였다.

한국 선현의 주자학 연구는 이황 퇴계로써 처음 뛰어난 大師로 삼고 뒤따른 자로서 이이 율곡이 있고, 그 뒤를 밟은자로서 宋時烈 尤菴, 韓元震 南塘이 있다. [그 외에도 저명한 학자들이 많으나 대개 이 몇 사람의 支流餘裔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입수된 자료에 의하여 이황, 이이, 송시열, 한남당 4인의 學案을 먼저 概述한다.

다만 서술한 것은 朱子 연구에 관한 것에만 국한한다. 나는 한국역사를 아직 연구해 보지 못하였으므로 諸賢의 출처라든가 그들이 극히 중시했던 禮說에 관한 것이라든가 기타 史跡에 관한 것은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

李滉의 號는 退溪, 明 孝宗 弘治 40年 辛酉에 生하여 明 穆宗隆慶 4年 庚午에 卒하니 享年 70이다. 漢城成均館大學에서 影印한 퇴계전서에

* 전 中國文化대학 교수(작고)

** 퇴계연구원, 『퇴계학보』 제5·6호(1975) 게재논문

의하여 보면 文集49卷, 別集·外集 各1卷, 續集8卷이 있고 自省錄1卷, 四書釋義, 啓蒙傳疑 이외에 또 宋季元明理學通錄本集10卷과 外集1卷이 있다.

퇴계의 저술은 매우 풍부하다. 따로 또 朱子書節要가 있는데 그 序文이 文集 권42에 실려 있다. 거기에 이르되

晦菴 朱선생은 亞聖의 資質로 빼어나 河洛의 정통을 이어 받았다. 그 全書에 就하여 論하면 땅과 같이 싣고 바다와 같이 포함하여 무엇이나 없는 것이 없지만 찾으려면 그 요령을 얻기 어렵다. 특히 서찰에 이르러는 각각 그 사람의 才稟의 高下와 학문의 深淺에 따라서 병에 맞춰 약을 주고 물(物)에 따라 추(錘)를 다는 방법을 써서 혹은 추기고 혹은 인도하고 혹은 구조하고 혹은 격려하여 나아가게 하고 혹은 물리쳐 경고해 주기도 하니 心術의 은미한 사이에 털끝만한 惡도 용납하지 않으며 義理를 캐어냄에 있어 호리의 차(差)도 앞질러 밝혀 낸다. 규모가 광대하고 심법이 엄밀하며…… 그 끊임없이 권면해 주고 타일러 줌이 남과 나의 구별이 없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일러 주는 말이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감발(感發)하여 일어나도록 함이 있다. 이것은 그 당시의 門下人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百世의 뒤에 있어서도 그 가르침을 얻어 들은 사람은 면대해서 일러 주는 말을 듣는 것이나 다름 없음을 느끼게 된다. ……이제 외람되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이 학문에 관계되고 受用에 절실한 것을 찾아서 끄집어 내어 놓으니 무릇 열 네권이나 된다. 그 원문에 비교하면 약 3분의 2가 줄어들었다. 대저 사람이 학문하는 데는 반드시 발단(發端), 흥기(興起)하는 곳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출발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서찰의 말은 일시 師友間에 학문의 宗旨와 비결을 講明하고 공부의 진정(進程)을 서로 責勉하는 것으로서 범범(汎汎)한 이야기와는 다르다. 어느 것이나 사람의 뜻을 감발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진작시키지 않는 것이 없다. 옛 성인의 가르침을 程子·朱子가 이르되 논어로써 가장 학문에 절실하다고 하였으니 그 뜻이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여기에 있어 다만 읽고 외우는 것만 힘쓰고 道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으니 利欲때문에 본 뜻을 빼앗긴 것이다. 이 글은 논어의 宗旨가 있고 利欲으로 꼬이는 害가 없다. 장차 학자로 하여금 감발 흥기하여 眞知·實踐에 힘쓰게 할 수 있

는 것이 이 글을 버리고 또 무엇이 있으랴

라고 하였다. 퇴계가 이 책을 편집한 것은 明 嘉靖 37年 戊午 즉 퇴계의 나이 58세 되는 해이다. 그 서문의 말을 보면 퇴계의 학문은 주로 心術의 隱微와 궁행실천에 중점을 두고 일반적인 이론 같은 것은 즐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해 嘉靖 己未 즉 퇴계 59세 되는 해에 宋季元明理學通錄을 편찬했는데 속집권8에 실린 그 서문을 보면

나는 생각하기를 孔孟의 문인은 이 道에 있어서 그 淺深高下가 달라서 얻은 사람도 있고 잃은 사람도 있는데 그 얻은 것은 스승의 가르치는 말씀의 抑揚進退하는 사이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본다. 考亭이 道를 提唱하니 門人弟子들이 매우 성하였다. 이제 이들 諸子에 대해서도 마땅히 이것으로써 法을 삼아야 한다. 대저 이 통록을 엮는 것은 그 사람을 알고져 할뿐이 아니라 따라서 그 道學의 요령을 밝히고자 함이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퇴계가 이 책을 편찬한 뜻은 朱子書節要를 엮은 뜻과 같은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일반적인 이론을 숭상하지 않고 당시 師弟子間의 일문일답 속에서 그 사람의 몸체에 관한 절실한 일로서 教導될 만하고 공부착수할 곳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연구한 것이다. 먼저 宋末의 朱門弟子에 着眼했고 뒤에 元明諸儒에까지 미치어 넓혀졌다. 다만 明儒編은 완성되지 못하였다.

퇴계가 理學通錄을 편찬함에 있어 朱子 이하의 諸儒에 대하여 때로 평론하는 말들이 여러 군데서 보이는데 이것을 종합하여 보면 역시 퇴계의 학을 논한 대체의 요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을 가지고 그 뒤 중국의 黃黎洲가 만든 明儒學案中에서 諸家를 평론한 말과 비교하여 보면 두 사람의 取舍·從違의 所在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퇴계가 朱子이후의 諸儒를 평한 것을 서술하려면 마땅히 먼저 李延平에 대한 평부터 언급해야 한다. 文集 권42에 『延平答問跋』이 실려 있는

데 대략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晦菴朱夫子는 선생을 보기 전에는 老·釋사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가 선생을 찾아본 뒤로부터 학문이 비로소 平實한 데로 나아가 마침내 千載道統의 전승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晦菴이 羣書를 절충하여 이 道를 천하에 크게 밝힌 것은 모두 선생으로부터 계발된 것이요 그 授受한 心法의 妙는 이 책 속에 갖춰 실려 있다. 이제 그 말을 갑자기 읽어보아서는 平淡質實하여 별로 신통한 것이 없는 것 같으나 그 뜻과 의사(意思)는 精深·浩博하여 끝 다한 곳을 알 수 없다. 그 공부의 친절한 곳은 언제나 일상 응수(應酬)와 動靜·語默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것이 선생의 『靜坐하여 中을 구하라』는 설이 禪學에 빠지지 않고 大本·達道가 다 갖추어 관통되지 않음이 없는 까닭이다

이 발문은 嘉靖 33年 甲寅, 즉 퇴계 54세에 지은 것인데 李延平에 대하여 승상이 대단하다. 자주 그 平實平淡한 것을 말하고 또 『공부의 친절한 곳은 언제나 일상 응수와 動靜·語默의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要領을 授受하는 心法의 妙에 돌렸으니 이는 그 뒤 朱子書節要와 理學通錄을 편찬한 취지와도 같은 것이다. 그 일반적인 범범한 이론을 숭상하지 아니함을 여기서 볼 수 있다.

퇴계는 朱子이후의 理學諸書에 있어서 眞西山의 心經과 程篁墩의 附註를 특히 중요시하였다. 이 冊을 중국明代의 理學諸儒들은 중요시하지 않았다. 지금 중국에 유전되는 것도 조선刻本이니 아마 퇴계로부터 처음 제창했던 것 같다. 문집권41에 心經後論이 있는데 이르기를

나는 젊어서 서울에 유학할 때 처음 이 冊을 여관에서 구독했다. 나의 감발·흥미는 이 책의 힘이다. 그러므로 나는 평생 이 책을 尊信하여 四書나 近思錄만 못지않게 생각한다

고 하였다. 이 글은 嘉靖 45년 丙寅 퇴계 66세때 쓴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퇴계는 心經을 稱述한 것이 많은데 문집권26答鄭子中書에 보면

편지에 요새 近思錄과 朱子書를 읽는데 여전히 재미있다고 하니 대단히 좋습니다. 더욱 마땅히 心經을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익혀 工夫를 夾輔하는 근거지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른바 『내물을 막는 기둥』이라, 『남쪽을 가르치는 수레』라, 『어둠을 비추는 거울』이라 하는 것도 모두 내 몸에서 친히 그 실현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다. 이 편지는 嘉靖 乙丑 즉 心經後論을 쓰기 1년 전에 한 것이다. 또 文集 권28 答金惇叙書에서도

心經에 君이 이미 눈을 부쳤으니 만약 뜻이 있으면 남에게 물을 것 없이 이 經에만 구하여 묵묵히 공부를 계속해 나아가 오래 익숙해지면 반드시 기뻐서 그만두려 해도 둘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는 말이 있다. 이 편지는 嘉靖 己酉 퇴계가 49세되는 때에 쓴 것으로서 후론 쓰기 17년이나 앞서서이다. 또 退溪先生言行通錄卷二에 보면

선생이 자신하시기를 나는 心經을 얻어 본 뒤에야 비로소 심학의 연원과 心法의 정미함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평생 이 책을 神明같이 믿고 이 책을 嚴父같이 존경한다(이 조목은 퇴계선생 언행록 권31에도 실려 있다.)

하였고 또

문기를 小學·近思錄·心經 셋 중에서 어느 글이 학자에게 가장 절실합니까하니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初學이 공부에 착수할 곳은 心經에서 더 절실한 것이 없다』고 하시다

하였고 또

일찍이 樹谷에서 선생을 모시고 하루밤 유숙했는데 선생께서 닭이 울자 곧 일어나서 心經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잇따라 논어를 강의하시다. 그 自疆不息하심이 이와 같다

하였고 또

선생께서 사람을 가르침에 있어서 小學을 먼저로 하고 다음 大學, 다음 心經, 다음 論語, 다음 朱子書에 미치고 그런 뒤에 經書에 미친다

하였고 또 文集 권23 答趙士敬書의 別紙에서는

心學圖는 반드시 西山의 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規模와 위치가 매우 정밀하고 적당하여 함부로 무시할 수 없다. 작자의 성명을 알 수 없으니 한스럽다

또 이르기를

다시 생각컨대 그림은 新安 程林隱復心の 作이란 것이 林隱의 四書章圖 中卷에 보인다

하였고 또 문집권21 答李剛而書 別紙에 이르기를

林隱의 心學圖를 만약 篁惇이 채택해 넣었다면 마땅히 스스로 그 취입해 넣은 뜻을 표시해야 할 것인데, 한마디도 그런 말은 없으니 아마도 뒷사람이 한 것 같은데 상고할 곳이 없다

고도 말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퇴계는 心經이란 冊에 대하여 이를 존중하고 신앙함이 지극하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師友들 간에 이 책에 대하여 의문과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퇴계는 일일이 다 그것을 답변하였다. 문집권20 答黃仲學問目에서 黃氏가 말하기를

心經에 인용한 여러 글은 산만하고 체계가 없어서 中庸·大學의 글과 같지 않다

하였는데 퇴계는 말하기를

대학·중용의 글은 물론 강령·조목의 맥락이 整齊·분명하다. 이것은 스스로 한 책을 지은 것이니 그 體裁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論語 같은 것은 비록 같은 類를 기록한 곳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는 모두 잡다하게 섞이었고 孟子的 글은 더욱 산만하여 손닿는 대로 주워 엮었다. 반드시 中庸·大學으로서 모범을 삼을 것이 무엇인가?

라고 답변하였고 黃氏는 또

篁墩程氏는 선현들의 切身한 奧旨를 모아 엮어서 類에 따라 자기 의사를 첨가하였으니 참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藥石이라 하겠으나 그러나 소견이 밝지 못하고 선택이 정미롭지 못하다. 예컨대 眞西山은 결만화려하고 실속이 없으며 范蘭溪는 펼쳐 늘어만 놓고 절신한 것이 없으며 黃慈溪는 소견이 이 두 사람에 비하여 더욱 떨어지는데 이 세 사람의 말을 모두 大註에 열거해 놓고 程朱의 격언은 도리어 註釋으로 돌려 놓았다

하였는데 퇴계는 말하기를

眞西山의 議論은 비록 때로는 文章學的인 기질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그 인품이 매우 높고 의리를 봄이 밝고 조예가 깊은 것은 朱子문인중에 그 한 사람 뿐이다. 范蘭溪는 朱門에서 許與하는 바가 心箴하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慈溪黃氏의 心經二條는 程朱의 遺志를 發明한 것인데 그 말의 뜻이 藹然하고 忠厚·懇惻하며 救世의 藥石이라 할 수 있다. 篁墩이 三子의 말을 大註에 써 놓고 程朱의 말을 혹 小註에 써 놓은 것은 선택이 정밀치 못해서가 아니라 말이 主·客의 差가 있고 뜻이 深·淺의 別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 또 黃氏가

篁墩이 첨부한 말은 發明한 바가 없다

한 데 대하여 퇴계는

篁墩은 여기서 스스로 道를 논하려고 한 것이 아니요 다만 그 諸說을 취사하여 이 註를 삼은 뜻을 보이려고 한 것이므로 가볍게 말해 넘어가는 것은 정히 그 『附說』의 체계를 얻은 것이다

고 辯解하였다. 이 편지는 嘉靖 42年 癸亥 퇴계 63세 때에 한 것이니 心經後論을 쓰기 삼년 전의 일이다. 또 문집권23 趙士敬에 답하는 여러 글에서 心經에 관한 변론이 더욱 자세하다. 그 대강을 드러보면

滉은 비천하고 우둔하여 들은 바가 없는데 요행 이 經과 이 註에서 路脈을 찾아 본 것이 있는 듯하다. 年來로 分에 따라 공부를 하는 것도 대부분 여기에 있다. 다만 그 經文을 묵묵히 생각해 보고 소리내 외우고 하면 벌써 일생 두고 알아도 다 알 수 없고 일생 두고 행해도 다 행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하물며 附註는 실로 濂, 洛, 關, 閩의 諸說을 함께 모아 놓은 바다(海)로서 매양 그 속에 들어갔을 때는 望洋의 탄식을 저절로 금할 수 없다. 원컨대 공은 문자상의 허물을 들춰내기에 힘쓸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허심과 겸손한 뜻으로 그 책을 尊信하여 마치 許魯齋가 小學에 대해서 하듯이 하면 그 속의 일언·일구도 다 師法으로서 받들어 행하기가 바쁜데 어느 겨를에 다른 것들을 점검할 여유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다. 心經이란 책이 理學에 있어서 차지하는 지위와 가치는 별개의 문제로 하되 퇴계의 학문이 이 책에서 힘을 얻은 것은 그 自認한 바와 같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대개 퇴계는 안으로 하나의 마음에 근거하여 眞知·實踐함으로써 학문을 삼는 것이요 泛泛한 이론 같은 것은 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 학풍이 그러했고 그 처음 착수해 들어간 곳이 바로 이 책에 있다.

또 그 趙士敬에게 준 편지에는 말하기를

篁墩先生은 내가 예부터 尊仰하기를 泰山·北斗와 같이, 神明과 같이하여 오던 것인데 貴兄이 보내 주신 고종의 편지를 본 다음 부터 落心千萬으로 일변 의심하며 일변 괴이하게 여기어 스스로 해석할 도리가 없

습니다. 그러나 道一編과 및 學菴通辨, 編年考訂等 책들은 얻어 보기 쉽지 않으니 또한 한이 되는 바입니다. 그러나 心經에 모아 놓은 것은 모두 孔孟·濂洛閩湖 여러 哲人들의 緒言인 만큼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상 趙士敬에게 답한 편지들은 모두 乙丑年에 한 것인데 다음 해인 丙寅年에 되게는 心經後論을 썼다. 대략을 말하면

草廬가 陸學임은 당시에 이미 그런 의론이 있었고 후세의 공론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篁墩의 사람됨과 그 학문함이 과연 어떠하였는지 알 수 없다. 전자에 橫城 趙大敦이 皇明通記를 읽고 그 가운데서 篁墩公의 事實三條를 적어 보여 줌으로 그것을 보고 篁墩의 爲人과 爲學이 이렇다는 것을 대략 알게 되었다. 이에 慨然히 탄식하고 허전하여 마음을 상한 지 여러 달이 되어도 풀리지 않는다

하면서 그 밑에 篁墩의 出題漏洩事件을 논하고 또 汪循의 『篁墩은 勢利 두 자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을 辯論하고 또 최후로 陳建의 篁墩道一編을 논한 것을 평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대개 생각컨대 朱陸二氏의 같지 않음은 故意로 같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쪽은 『儒』이고 저쪽은 『釋』이니 이렇고서야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공자께서는 『文에 널리 비우고 예로써 約하라』 하였고 子思는 『덕성을 높이고 문학에 힘쓰라』 하였고 맹자는 『널리 배워 자세히 설명함은 장차 돌이켜 約을 말하고자 함이다』고 하였으니 이 두 가지는 서로 기다림이 車의 두 바퀴와 같고 새의 두 날개와 같아야 어느 하나도 廢하고서는 갈 수도 날 수도 없는 것이다. 朱子가 일생 동안 이 두가지에 종사하여 어느 한쪽에 치우침을 깨닫기만 하면 곧 猛省하여 통렬히 고쳤다.

그러므로 그 書札復往에 나타난 것을 보면 서로 抑·揚함이 있었으니 이것은 朱子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스스로 서로 돕고 서로 구제하여 大中至正의 道에 나아가도록 함이다. 어찌 초년에는 文義의 末에만 미혹되었다가 象山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고 本原으

로 돌아 온 것이겠는가? 나는 道一編을 보지 못했으므로 그 말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나 그러나 책 이름을 가지고 생각하면 그는 반드시 『道는 하나요 둘이 아니다』 『陸氏는 頓悟로 하나를 가졌고 朱子는 처음엔 둘이다가 만년에 하나로 되었다』고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陸氏가 朱子에게 도움 받은 것은 없고 朱子가 도리어 陸氏에게 도움 받은 것이 된다. 이로써 보면 賂物받고 出題를 팔았다는 獄事는 비록 誣陷이라 할지라도 勢利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평은 혹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혹자는 말하기를 『그대의 말대로라면 心經은 尊信할 만한 것이 못되지 않는가?』한다. 나는 가로되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책을 보니 그 經은 詩·書·易과 程·朱의 說에까지 미치어 모두 성현의 大訓들이요 그 註는 濂·洛·關·閩을 인용하고 후일의 諸賢의 說까지 兼取하여 어느 것이나 至論이 아닌 것이 없다. 어찌 篋墩의 잘못으로써 大訓·至論까지 尊信치 않아서 되겠는가?』 『다른 것은 그러하지만 末章註에 이르러 이미 주자의 說은 初·晩이 다르다 해 놓고 草廬의 說로써 끝을 맺었으니 이것은 정히 道一編과 같은 규모의 의론이 되는 것이 아닌가?』한다면 나는 이렇게 답한다. 『『博文』에만 힘쓰고 『約禮』에는 조금치라도 소홀히 하면 그 弊는 반드시 口耳之學의 버릇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朱子는 당시에 이것을 걱정하고 경계함이 진실로 이 註에 인용한 12個條의 말과 같이 德性을 높여서 文義의 폐를 구하였던 것이니 이는 篋墩의 말이 아니라 朱子의 의도가 본래 그러한 것이었다.

篋墩은 다만 여기서 初·晩의 분별을 區區하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되는 것이다. 그가 朱子의 뜻을 따르고 西山의 經을 찬성하여 이것을 篇末에 註해 놓은 것은 末學의 誤를 구하고자 함이니 이는 실로 지당하여 바꿀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다만 朱子說을 인용하고 諸儒의 朱說을 發明한 조목을 열거하여 보충했을 뿐이요 한마디도 陸氏의 학에 언급하여 朱子가 만년에 뉘우쳐 합지를 보았다고 道一編에서처럼 말한 것은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의 학자는 마땅히 博文·約禮 두 가지를 갖춰 힘써야 하고 朱子의 성공은 이 두 가지 공부가 서로 도움이 되었던 것이니 이는 우리 儒門의 본래부터 있는 법임을 알아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써 이 經과 이 註를 읽고 篋墩의 道一編의 誤謬를 그 사이에 섞어 넣지 않는다면 성인되고 賢人되는 공부가 오직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尊信함이 마땅히 어떠하겠는가? 許魯齋가 일찌기 말하기를 『나는 小學을 神明같이 공경하고 부모같이 존대한다』고 하

였는데 나는 心經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것으로 보면 퇴계는 篁墩의 爲人과 그 爲學에 대해서는 비록 辯解를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篁墩이 註한 心經을 尊信하는 것은 여전히 조금도 감퇴되지 않았다. 퇴계는 스스로 말하기를 『心經에서 心學의 淵源과 心法의 정미함을 알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朱陸의 변에 대해서는 매우 확고하게 지킨다. 대개 퇴계의 이른바 心學이란 것은 陸王의 心學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문집권41에 傳習錄辨이 있는데 거기서 이르기를

陽明은 다만 外物이 마음의 누가 되는 것만 걱정하고 『民彝·物則』의 참되고 지극한 이치(理)가 즉 내 마음의 본래 갖추어 있는 이치임을 모른다. 學을 강론하고 理를 궁구함은 정히 본심의 체를 밝히고 그 본심의 用을 달하고자 함인데 이제 事事物物을 일체 모두 쓸어서 본심속으로 끌어들여 함께 섞어 말하고자 하니 이것이 釋氏의 견해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또 말하기를

陽明은 진실로 사람이 善을 보고 좋아하기를 과연 好色을 보고 절로 좋아하듯이 참되게 한다고 생각하며 사람이 惡을 보고 미워하기를 과연 악취를 맡고 절로 미워하듯이 진실되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孔子는 『나는 덕을 좋아하기를 色 좋아하듯이 좋아하는 자를 보지 못했다』했고 또 『나는 不仁을 미워하는 자를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人心이 形氣에서 발한 것은 배우지 않아도 절로 알고 힘쓰지 않아도 절로 능히 하는 것이다. 그것은 好惡의 소재가 표리가 한결같기 때문이다. 호색을 좋아하고 惡臭를 미워하는 것은 行이 知에 붙어 있다고 해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의리에 이르러서는 그렇지 않다.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힘쓰지 않으면 능히 하지 못한다. 그 밖에서 행하는 것이 반드시 안에서 진실되다고 할 수 없다. 대학에서는 저 『表裏如一』한 好惡을 예를 들어서 학자의 『毋自欺』를 권한 것이니 그것은 可하나 陽明은 이제 저 形氣의 소위를 인용하여 이 의리의 지행설을 밝히고저 하였으니 이것은 크게

불가하다.

성현의 학문은 마음에 근본하고 사물에 관통하는데 揚名의 견해는 오로지 본심만 일삼고 사물은 관계하지 않으려 한다. 疾通을 알고 그것을 처리함이 그 도를 얻어야 비로소 疾痛의 지행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饑寒을 알고 그것을 처리함이 그 도를 얻어야 비로소 饑寒의 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앞의 것만 가리켜 行이라 한다면 행한 바가 혈기일 뿐이요 의리는 아니며 만약 굶주리고 추운 것만 가리켜 行이라 한다면 그 행이라 한다면 그 행한 것은 人心일 뿐이요 道心은 아니다. 대저 痛痒을 알고 饑飽를 앎으로써 性이라고 한 것은 이 본래 告子の 『生之謂性』의 說에서 나온 것인데 陽明의 소견이 바로 이것과 같다.』

고 하였다. 그리고 言行錄에는

선생이 일찍이 이르기를 中原의 학자들은 모두 葱嶺의 기미를 띤다. 그리고 白沙詩數의 跋과 陽明傳習錄辨을 써서 이를 물리치다

고 기록되어 있다. 문집권41에 이 글이 실려 있는데 그것은 心經後論을 쓴 뒤의 일이다. 그 글에 이르기를

陳白沙·王陽明의 學은 다 象山에서 나온 것으로서 본심을 宗으로 삼는데, 대개 모두 禪學이다. 그러나 白沙는 그래도 순수한 禪은 못되어, 書訓을 다 廢해 버리지는 않았다. 다만 그 悟入한 곳이 결국은 禪家의 手法이다. 羅整菴이 이미 이것을 지적했다

고 하였다. 퇴계는 羅整菴도 평한 것이 있다. 문집권17 『友人에 답하여 學을 논하는 글』에서 말하기를

羅氏의 困知記에 『道心은 性이요 人心은 情이다. 至靜의 體는 볼 수 없으므로 微라 하고 至變의 用은 헤아릴 수 없으므로 危라고 한다.』고 하였는데, 그 말이 자못 근사한 듯하여 湛氏甘泉의 비할 바 아니나 그러나 그害됨이 더욱 심하다. 道心을 未發以前에 국한시켜 놓았으니 이것은 道心이 『叙秩』, 『命討』¹⁾에 관계 없는 것으로서, 性이란 體만 있고

用은 없는 것이 되며, 人心을 已發以後로 갈라 놓았으니 이것은 人心이 本原의 性命에 依資하지 않는 것으로서, 情이란 惡만 있고 善은 없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朱子의 說에 비취 보면 얼마나 틀리는가?

또 문집권16 答奇明彦書에서

近世에 羅整菴이 理氣가 異物이 아니라는 說을 倡하여 朱子說을 그르다
고까지 하니 滉은 도무지 그 뜻을 알 수 없다

고 하였다. 또 문집권17 『重寄奇明彦書』의 別紙에 이르기를

整菴은 道에 있어서 一斑을 들여다 본 것이 없지는 않으나 다만 大源頭
處에서 잘못 認識하고 있으니 그 나머지 소소한 의론이야 아무리 합리
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 가치 없는 것이 된다

고 하였고 언행록에는

整菴의 學은 자칭 異論을 물리친다고 하나 겉으로 배척하고 뒤로 도와
주며 왼쪽으로 막고 오른쪽으로 끌어당기니 실은 程朱의 罪人이다

고 하였다. 퇴계는 羅整菴에 대해서만 이렇게 엄준한 평을 한 것이 아
니라 朱子 당시의 大弟子인 黃勉齋같은 사람에게 대해서도 평을 하였다.
退溪文集續集卷3 答朴澤之書의 別紙에서

勉齋黃氏는 朱門에서 얻은 바가 더욱 깊어 後學으로 감히 함부로 논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이 날 때 이 氣를 얻어 形을 삼고 이 理를
갖추어 性을 삼았다』는 勉齋의 말은 틀림이 없으나 그 능히 虛靈知覺하

-
- 1) 書經臯陶謨에 『天叙有典, 勅我五典……天秩有禮, 自我五禮……』 또 『天命有德
……天討有罪……』란 말이 있다. 여기 말하는 『叙秩』은 즉 臯陶謨의 『天叙·天
秩』을 말하는 것이요, 여기 말하는 『命討』는 즉 臯陶謨의 『天命·天討』를 말하
는 것이다.

여심이 되는 所以는 곧 이 理氣가 합하여 능히 그렇게 되는 것이요 理氣 밖에 따로 이른바 虛靈知覺이란 것이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體性』 밑에 말하기를 『또 반드시 虛靈知覺하는 것이 그 사이에 있어서 心이 된다』고 하였으니 이렇게 되면 마치 사람으로 하여금 理氣 밖에서 따로 虛靈知覺을 찾게 하는 것이 아닌가 疑心하게 한다. 그 語意에 있어서 差失이 없다 할 수 없다. 이것은 朱子가 明德을 풀이하고 心を 풀이한 말들과는 전혀 다르다

이상 인용한 여러 조항에 의하여 보면 퇴계의 學은 한결같이 朱子를 본으로 하고 謹思 慎辯의 공부를 극진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학자들을 평함에 있어서도 辭意가 돈독하고 진지하여 泛泛히 남의 허물이나 들춰내는 類의 평이 아니다. 그 장점은 더욱이 心を 논하는 데 있다. 文集卷19 答黃仲學書에서 말하기를

腔子 밖은 무엇인가? 역시 이 物事일 따름이다. 이 物事는 무엇인가? 즉 腔子속에 가득 차 있는 物事이다. 이 하나의 腔子로부터 천지·만물에 이르기까지 통하여 다만 하나의 理일 따름이다. 理가 하나이므로 氣도 둘이 아니다. 腔子 밖에 따로 무엇이 있겠는가? 다만 이 方體를 말할 수 없고 內外를 가를 수 없는 것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仁者는 천지·만물로써 일체를 삼는다. 『惻隱의 心은 죽히 四海에 퍼지고 六속에 들어찬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 허공에 떠 있는 物事도 아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腔子는 그것의 고동(樞紐)이 되고 머릿골(總腦)이 되는 곳이다. 이 物事가 이것 속에 들어차 있어서 천하의 大本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方體 없고 內外 없는 까닭에 이 속에 들어차 있는 心은 즉 만물을 體認하고 사해에 퍼지는 心이요 腔子밖에 따로 만물을 體認하고 사해에 퍼지는 또 하나의 心이 있는 것이 아니다. ... 朱子는 黃毅然에게 말하기를 『天命의 性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곳곳에 다 있다. 다만 그것을 찾아보려면 먼저 자기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 사람이 자기 몸에서부터 구하지 않고 腔子밖으로 나가서 찾는다면 이것은 고동(樞紐)이 되는 大本의 所在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달아나서 구하는 것이 된다. 그것이 나의 性分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여기서 퇴계는 이 心이 『無方體·無內外』한 것으로서, 腔子안도 이 心이요 腔子 밖에도 이 心일 뿐이며 『理一·分殊』이므로 마땅히 자기몸에서부터 구해야 한다는 뜻을 발휘하였는데, 그 의론함이 지극히 넓고 宏大하며 또한 지극히 친절하다. 大意는 위에서 인용한 조목 즉 『이 마음의 虛靈知覺은 다만 理氣속에 있는 것이며 다만 理氣의 합일 따름이다』한 것에 근거하여 말한 것인데 그 진술한 뜻은 程朱의 本旨를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퇴계자신으로 본 바를 말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또 文集 권11 『答奇明彦論改心統性情圖』란 글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날 때 같이 천지의 氣를 얻어서 體를 삼고 같이 천지의 理를 얻어서 性을 삼았으니 理와 氣의 습이 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一人의 心은 즉 천지의 心이요 一己의 心은 즉 천만인의 心이다. 처음부터 內와 外, 彼와 此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성현이 心學을 논함에 있어서 반드시 모두 끌어다가 자기에게 붙여서 자기 마음(己心)으로 삼아서 말하지 않고 대개 모두 일반적으로 人心을 가리켜 그 名理가 어떻고, 體用이 어떻고, 操舍를 어찌하는가를 논하였다. 소견이 투철하고 이론이 분명하면 그것으로써 스스로 행하면 내 마음의 이치(理)가 이미 이러하고 이것으로써 사람을 가르치면 人心의 이치(理)가 또한 이러하다. 마치 못 짐승이 강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각각 그 양을 채워 얻지 못하는 것이 없다. 어찌 구구하게 남과 나의 구별을 두어 반드시 자기를 근거하여 말하고, 타인의 心에 관계됨을 꺼려할 것이 무엇이라?

라고 하였다. 이 조항은 또 그 앞의 조항을 이어서 다시 다시 되풀이하여 말한 것인데 그 말이 더욱 명백하고 더욱 투철·절실하다. 각 개인의 腔子안에 있을 때는 각자 하나의 마음 같지만 각 개인의 腔子밖으로 넘어서면 공동·화합의 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일러 『天地之心』이라 하고 이것을 일러 『大人之心』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은 물론 儒家의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역시 퇴계로서 자신의 본바를 말하는 것이다.

또 文集 권28 『答金惇叙』란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람은 다만 心이 物에 젖(漬)는 害만을 보고 드디어 사물을 心害가 된다고 하며 일을 싫어하고 잊어 버리려 하며 움직임을 싫어하고 고요함을 즐긴다. 老佛의 무리만이 이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陷溺하는 것이 아니라 吾儒의 학자라 하더라도 소견이 털끝만치라도 틀림이 있으면 이런 지경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다. 上蔡의 賢으로서도 그것을 면치 못하여 明道가 맹자의 養氣說을 인용하여 存心의 法으로 삼아서 가르쳤다. 이 敬과 義를 夾持하여 바로 곧장 天德으로 上達하는 것이 가장 緊切하게 힘써 공부해야 하는 곳이다. 진실로 능히 이에 종사하여 참된 노력을 쌓아 하루 아침에 얻는 바가 있게 되면 마음은 사물에 대하여 오지 않았을 때는 미리 마중하지 않고 바야흐로 올 때는 그냥 그대로 비추고 이미 응한 다음에는 그것에 係累되지 않는다. 本體가 湛然하여 明鏡 止水와 같으므로 비록 날마다 만사를 접해도 마음에 한가지 物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니 또 무슨 心害가 될 것이 있단 말인가?

理와 氣가 습하여 心이 되었으므로 心은 결코 사물을 떠나 스스로 하나의 心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퇴계는 程朱學에 있어서 가장 敬字를 잘 지켜서 그것으로써 心法을 삼는다. 그는 朱子 이전에 있어서는 오직 李延平을 尊崇하였고 朱子 이후에 있어서는 明儒中の 曹月川을 가장 존중한다. 理學通錄附錄에 말하기를

曹月川의 學行은 吳康齋與弼보다도 오히려 위에 있다. 앉는 자리의 발 닿는 곳에 두 벽돌이 다 닳아서 뚱리게 될 정도로 靜을 전수하는 공부가 많았다. 그 말에 이르기를『佛氏는 空으로써 性を 쌓으니 『天命之性』이 아니요 『人受之中』이 아니며 老氏는 虛로써 道를 삼으니 『率性之道』가 아니요 『人由之路』가 아니다』라고 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정미롭다.

고 하였고 또 薛敬軒을 중시하였는데 文集 권21 答李剛而書에서 말하

기를

薛公의 독서록은 『困知記』나 『傳習錄』의 比가 아니다. 그 말이 모두 친절하고 맛이 있어 가장 사람을 불러 깨우쳐 주는 곳이 많다.

고 하였다. 퇴계는 그 學이 한결같이 心經에 근본하였다고 自述하였지만 그러나 잘 관찰하는 자는 延平·月川·敬軒 세 사람으로부터 나아가 퇴계의 學脈을 찾아보면 과히 틀림이 없을 것이다. 退溪文續集 권1 寄奇明彦書에 이르되

心은 萬事의 근본이요 性은 衆善의 原이다. 그러므로 先儒는 학문에 있어서 반드시 放心을 거두고 德性을 養함으로써 최초의 着手處로 삼는다. 그것이 本原을 성취시키는 바탕이며 도를 모으고 業을 넓히는 터전이 되는 것이니 그 공부의 요령을 다른데서 구할 것이 무엇인가? 이른바 『主一無適』과 『戒愼恐懼』이 바로 그 요령이다. 主一의 공부는 動靜에 통하고 戒懼의 경지는 전혀 未發에 있다. 二者는 어느 하나도 빠뜨릴 수 없다. 밖에서 제어하여 그 안을 양하는 것이 더욱 緊切하다. 그러므로 『三省』, 『三貴』, 『四勿』²⁾의 類가 다 應接에 취하여 말한 것이니 이 역시 本原을 함양하는 뜻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心地의 공부만을 주로 한다면 釋氏의 견해에 떨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였고 또 陶山及門諸賢錄卷·1 李湛仲久 조항에 퇴계가 그와 더불어 朱子書節要를 토론한 것이 있는데 이런 말이 적혀 있다.

義理는 물론 精深한 곳이 있는 것이지만 유독 粗淺한 곳이 없을 것인가? 人事는 물론 緊要한 酬酌이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한가한 수작이 없을 것인가? 내 몸과 내 마음에 관한 것이 절실하고 먼저 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과 物에 있는 것 같은 것도 그것을 절실치 않다 하여 버려두어도 좋을 것인가? 吾儒의 學이 이단과 다른 것은

2) 『三省』은 論語學而篇에서 말한 「吾日三省吾身……」을 말한 것, 『三貴』는 論語泰伯篇에서 말한 「君子所貴手道者三……」을 말한 것, 『四勿』은 顏淵向仁章에서 말한 「非禮勿視……」 등을 말한 것이다.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다. 孔門의 제자들은 이 뜻을 알기 때문에 논어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 精深한 곳도 있고 粗淺한 것도 있으며 緊酬酌도 있고 閑酬酌도 있으며, 吾心·吾身に 절실한 것도 있고, 在人·在物의 것으로서 나의 身心에 절실치 않은 것 같은 것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다 道의 一端이 아님이 없다.

이 글(朱子書節要)에 採取된 것은 來喩에 말한 마땅히 먼저 해야 할 것은 이미 너무 많을 정도로 뽑아 놓았다. 그 후 피차 왕복하는 사이에 問安하는 것, 情懷를 서술하는 것, 산수 구경에 관한 것, 시국을 비판하고 세속을 염려하는 것 같은 緊切하지 않아 보이는 閑酬酌도 간혹 채취하여 兼收한 것은 독자로 하여금 그것을 玩味함으로써 朱先生을 한가한 사이에 친히 찾아보고 談笑기침하는 중에 그 말소리를 들어 보는 것이 같이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有道者의 氣象을 그 풍채와 神韻속에서 찾아 보는 것이 精深한 의리에만 힘쓰고 不緊할 일은 모두 시시하게 여기어 도리어 고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한다. 뿐만 아니라 師友간의 의리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 의가 중한 때문에 정이 깊고 정이 깊기 때문에 여러가지 서로 周旋하고 觀代하고 叙情하는 말들이 절로 많아진다. 만약 이런 것을 모두 의리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身心修養에 절실치 않다고 해서 다 던져버린다면 옛사람의 師友의 道가 이처럼 중차대함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상 인용한 두 조항에 의하여 퇴계의 心學·心法에 있어서 인생 일상생활 사이에서 謹密하게 實踐躬行하는 그 體段과 意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한결같이 朱子를 尊信하면서도 더욱 위로 李延平을 떠받들고 아래로 薛敬軒을 좋아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文集 권41 『心無體用辨』에서 말하기를

나는 학문이 淺陋하여 오직 先儒의 定本으로 되어 있는 학설을 삼가 지켜 그대로 따라 공부의 노력을 가할 분이요 아직 그것을 通解하지는 못한다. 이 밖에 幽深·玄遠한 이론은 실로 미처 그런데까지 미칠 여가 없다.

고 하고 또 文集 권19 『答黃仲舉論白鹿洞規集解』에서는

옛 성현이 사람을 가르쳐 학문을 함에 있어서 어찌 사람 사람으로 하여금 道를 알게 하려고 서서 이야기 하는 사이에라도 모든 것을 다 들어 전해 주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은 道를 전하기 아까워서 사람을 卑近한 곳에 국한시키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事勢上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기 때문이다. 三千의 무리가 날마다 聖門에 노니면서도 강론한 것은 다만 효·제·충·신과 詩書와 禮를 행하는 일에 불과하였고 그 仁을 논한 것도 仁을 행하는 일에 그칠 뿐이다. 그 오람에 미쳐 재질에 따라 성취하여 각각 얻는 바가 있었지만 一貫의 妙는 오직 曾子·子貢만이 가히 알아들을 수 있었으므로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일러 주시었다.

先王의 사람이 가르치는 법을 오늘날에 볼 수 있는 것은 소학과 대학이 있다. 소학의 가르침은 본대 인사의 纖微한 곡절을 다한 것이요 대학에 이르러서는 비록 그 규모가 지극히 크지만 그 知로써 말하면 사물에 취하여 궁리·격물하는 것을 말했고 그 行으로써 말하면 성의·정심·수신으로 말미암아 미루어서 家國에 미치고 천하에까지 통달한다. 그 가르침이 순서 있고 배움이 實을 힘쓰는 것이 이와 같다. 그 治를 논함도 存心과 出治의 本을 말할 뿐이요 夫子가 顏淵에게 고한 것 같은 그런 제도·문장의 類에는 미치지 않았다. 무슨 까닭인가. 四代에 損益하여 百王의 大法를 삼은 것은 顏淵만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대학으로 말하면 그것은 천하를 위하여 通法을 세운 것인데 聖人이 어찌 천하의 英才를 거것으로 속여 모두 爲學初에 躡等해서 일러 주겠는가?… … 대저 儒者의 學은 마치 높은데 오르는데 낮은 곳으로부터하고 먼 데 가는데 가까운 곳으로부터 하는 것과 같다.

낮은 곳으로부터 하고 가까운 곳으로부터 하는 것이 迂緩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를 버리고 또 어디로부터 높고 먼 데로 갈 수 있겠는가? 노력하여 점진한 나머지 이른바 높고 먼 것이 낮고 가까운 것에 떠나지 않으면서 얻어지는 여기에 釋老의 學과 다른 점이 있는 것이다. 이제 한 발자국도 떼지 않고 문득 끝없이 높은 곳으로 오르기를 責하고 發도 아니하고 급히 끝없이 먼 곳으로 나아감을 期하니 천하에 이런 이치가 어디 있겠는가? 또 자세한 것을 다 캐보지도 못하고 한갓 그 一言半句의 말만 믿어 얻음이 있고저 한다면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함부로 제멋대로 상상 억측하여 큰소리로 속이고 놀래워 마침내 하늘을 속

이고 성인을 속이는 罪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 그 해됨이 어찌 소소한 文義의 差誤만에 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 인용한 두 조항에 의하여 보면 퇴계가 학문하는 방법과 그 가르치는 방법은 이른바 『가르침이 순서있고 배움이 實을 힘쓴다』는 그러한 類의 것임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으니 더 지적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다. 또 文集 권19 『重答黃仲舉』란 글에는 이런 말이 있다.

至善과 一貫은 비록 두 가지 이치는 아니지만 그러나 『至善』은 事事物物이 제각기 가지는 알맞춤하게 잘 맞는 도리를 가리켜 말한 것이요 『一貫』은 大原·大本으로부터 천차만별한 것에 이르기까지 일제히 꿰뚫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인의 마음은 渾然한 『하나의 이치(一理)』 이면서 두루 응하여 제가꿈 들어맞는 것이 각각 다르다. 가리키는 곳이 같지 않고 立言의 취지도 다르므로 理가 같다 해서 아무렇게나 혼동해서 하나로 간주해 말할 수 없다. 하물며 至善에다가 『止』字를 더해 놓았으니 正히 曾子가 그 『用』에 있어서 일에 따라 정밀하게 관찰하고 힘써 행하는 일을 말한 것이다. 어찌 衆理가 한군데 모였다 해서 『一貫』과 그 뜻을 같이해서 되겠는가? 絜矩의 用은 비록 지극히 광범하지만 그러나 다만 『마음을 가지고 사물을 헤아려 그 均齊·方正을 얻는다』(絜矩의 朱子해석)는 점에 취하여 말한 것이요, 制度文章을 말한 것은 본디 아니다. 당시에 顏淵이 물은 것은 천하 다스리는 방법을 물은 것이요 學을 논한 것은 아니다. 大學으로 말하면 사람에게 『修己·治人』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인데 『存心·出治의 本』을 버리고 문득 이런 [制度같은 것을] 언급한다면 이는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니겠으며 수 용에 緊切치 않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 조항에서 至善과 一貫이 같은 뜻이 아님을 변별하였다. 대학에서는 制度文章에 언급하지 아니하여 논어의 『顏淵問爲邦』章과 다르다고 하였다. 대저 퇴계는 자신이 학문함에 있어서나 남을 가르침에 있어서나 반드시 먼저 前者의 항목(즉 存心·出治의 本)을 注重하고 점차로 後者の 항목(즉 制度文章)에까지 따라 미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퇴계가 여기서 반드시 분석을 가하는 요지의 소재이다 그는 또 말하기를

대저 천하만물을 통하여 다만 이 하나의 理일 뿐이므로 義理의 말이란 두루 모아 합해서 말하면 같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 하나 지적해 말하면 서로 근사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겠으나 당초 성현의 立言한 본의가 그렇지 아니함을 어찌하라? [그런데 그것을 합해서 말한다면] 經訓을 發明할 수 없고 도리어 반대로 진리를 어둡게 하고 實見을 어지럽히는 것이니 이것이 학자의 通弊이다. 옛 사람이 종신토록 講學해도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는 까닭은 다름아니라 의리의 隱微하고 정밀한 곳이 이처럼 틀리기 쉽고 알기 어렵고 또 착수해서 실천하기도 용이치 아니하여 그만둘래야 그만둘 수도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여기서도 퇴계의 학문을 논함은 여전히 성현의 經訓과 先儒의 遺言에 대하여 愼密히 體會하고 독실히 실천하는데 중점을 두고 廣博하게 끝어다가 두루 합쳐서 학설을 내세우고 空談·高論을 요란스레 버려 놓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평일에 친구들과 理氣를 해석하고 心性을 辯說함에 있어서 무릇 드러내 밝힌 바가 대개 모두 이와 같다. 다만 만년에 奇明彦과 四端七情의 異同을 토론하면서 往復四五回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변론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 편에서 상술하지 않고 다음 율곡편에서 附帶하여 언급하겠다. 요컨대 사색을 일부러 일으키고 이론을 내세워 주장하는 것은 퇴계의 학문하는 정신의 所在가 아닌것 같다. 그러므로 우연히 미처 알지 못한 곳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퇴계의 결점으로 볼 수는 없다.

한국의 先儒로서 朱子를 깊이 연구한 사람은 퇴계이후로 이이 율곡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송시열 尤菴이 있다. 尤菴은 말하기를 『이황의 珥에 대한 愛重·許與는 그 문집을 상고해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였고 또 『이황이 學을 논함에 있어서 珥의 說을 쫓은 것도 많다. 聖學十圖·中庸小註 같은데서 볼 수 있다.』고 하였다.(宋子大全百六十二浦渚趙公神道碑銘序) 퇴계가 죽은 뒤 율곡이 諡를 청하여 이르되 『이황은 性理에 沈潛하여 옛 名賢도 이에 지나갈 사람이 없다.』(宋子大全拾遺卷八栗

谷墓誌銘) 하였고 또 그를 위해 문묘에 종사할 것을 청하였다.(宋尤菴의 浦渚趙公神道碑銘) 이것으로 보면 율곡은 퇴계에 대하여 본래 그 정신이 일관되었고 학파를 이어 받았던 것이다. 비록 몇 개의 字義解釋에 있어서 諍論한 바 있었지만 율곡의 퇴계에 대한 崇仰과 존중의 심정에는 조금도 감소된 것이 없다.

(이 상 은 譯)